더불어민주당	보 도 자 료	2021.11.29.(월)
	더불어민주당 다이너마이트 청년 선거대책위원회 담당처 : 다이너마이트 청년 선대위원회(구. 청년플랫폼) 담당자 : 홍서윤 대변인(010-4455-8255)/김기윤 상황실장(010-5314-0062)	

더불어민주당 다이너마이트 청년선대위원회 기자회견문

더불어민주당 다이너마이트 청년선대위원회, 국민의힘 윤석열 청년위원장에게 공개 토론 제안

○ 각 당의 청년 대표로서 시대의 청년 상과 청년들의 미래 함께 논의하자 제안.

○ 주 120시간 노동, 아프리카 손발 노동과 같은 시각은 청년정책을 되려 후퇴시킬 뿐

○ 청년 문제 시대적 문제로 단편적이지 않아. 각 당 청년들이 정책적 토론 필요.

"윤석열 후보님, 먼저 국민의 힘 대선캠프 청년위원장을 맡으신 것 축하합니다. 저 또한 대한민국의 청년 중 한 사람으로서 저희 세대에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 우선 감사를 표합니다.

청년정책은 IMF 외환 위기 이후 심각해진 청년 실업문제가 사회에 드러나면서, 2004년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처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으로 개정되었고 작년엔 청년기본법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처음 청년정책이 만들어지고 나서도 그로부터 17년이 지난 것입니다. 그간 수많은 청년정책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청년정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들의 체감으로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청년정책은 드뭅니다. 주 120시간 노동, 그리고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에서나 하는 것이라는 윤 후보님의 말은 청년의 삶을 후퇴시킬 뿐입니다. 채용 비리쯤은 대법원 판결이 안 나왔으니 묻어두자는 등의 안일함과 기성 정치권의 태도로 만들어질 청년정책은 되려 청년의 삶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냥 청년정책이 아니라 이제껏 하지 않았거나 못

했던, 그러니까 기존의 관성을 깨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청년정책입니다. 윤 후보님의 청년에 대한 애정은 알겠으나 보여주기식의 청년정책은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저는 더 좋은 청년정책, 더 새로운 청년정책을 만들기 위해 국민의힘 대선캠프 청년위원장이신 윤 후보님께 공개토론회를 제안합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청년위원장께서 청년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 진심이라면, 민주당의 청년선대위원장인 제가 드리는 이 공개 토론 제안에 응해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각 캠프의 청년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청년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지, 또한 시대의 청년 문제와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 함께 논의하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청년위원장께서 제안하는 토론의 방식과 일정, 모두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공개 토론에 대한 윤석열 후보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